

北 로켓발사 이후 '대북제재'는

“로켓 대만족” 김정일, 관제소서 발사 전 과정 관찰

美 ‘느긋’... 안보리 결의·회담재개 병행

정부 “결의안 채택이 1차 목표” 신중

북한이 지난 5일 시도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는 일단 겉으로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 발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나 성공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면서 한·미 등의 대응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보다 강경한 톤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만약 발사에 성공해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도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재’라고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워했다. 비록 오바마 미 대통령이든 전날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칙위반’으로 규정하며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규칙에는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미국이 좀 더 느긋하게 제재에 집중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에만 집중해 대화 노력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광명성2호’의 발사 전 과정을 관찰한 후 과학, 기술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왼쪽은 전병호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이며 오른쪽은 개량형 로켓 개발 총책임자로 알려진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다.

北, 2006년 핵실험 성공 여부도 논란

실험 규모·내용에 의혹 남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태 이후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5일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성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이 즉각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일축한 것과 같은 일이 3년 전에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단 진도를 문제삼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다음날 “북한 핵실험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진도 3.9였다”고 밝혔다. 전날에 발표한 수치인 3.58을 수정한 것이지만 이는 대략 TNT 1kt의 폭발 규모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와 22kt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폭발 규모다.

질(Pu239)에 다른 이물질(Pu240)을 섞어 터트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 등 수뇌부에게 ‘핵실험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위장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측은 객관성 여부를 떠나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이 일반적인 성공사례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과 양상을 보였음을 말해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kt급 이하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개발해 먼저 실험했을 가능성과 10~20kt급의 전략 핵탄두를 실험했으나 부분적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바마, 새벽잠은 설쳤지만...

체코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 때문에 새벽잠을 설쳤다고 CNN방송이 5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시30분(체코 현지시간)

잠을 자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을 깨워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사실이 확인됐음을 알렸다. 군통수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접촉 대상에는 또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다수의 정보담당 관리들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Advertisement for PMS Kim Young-pyeong Entrance Exam Institute. Features website addresses (www.pms.co.kr, www.kimyoung.co.kr), exam success rates (80% for MEET & DEE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Dong-bu branch.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Promotes services for finding the best locations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Advertisement for Suwon Jigu Real Estate.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commercial buildings and residential lot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branch.

Advertisement for Gimbudo Real Estate. Offers a wide range of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Hyundai Gongin Real Estate. Specializes in land acquisition and construction services,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various projects.

Advertisement for A+ Eiplus Real Estate. Focuses on prov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